

# 韓國外國語大學校의 教育理念과 發展計劃



黃秉泰  
(韓國外國語大 總長)

## I. 略史와 現況

한국의국어대학교는 6·25동란 후 焦土化되었던 조국을 일으켜 세워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학교육과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출발했다. 이와 같은 教育立國의 정신에 따라 1952년 12월 학교법인 東國育英會가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1954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종로 2가 82번지 영보빌딩에서 개교함으로써, 한국의국어대학교는 그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본교는 영어과, 불어과, 중국어과, 독일어과, 러시아어과·서반어과 등을 중심으로 한 국내 유일의 외국어 전공 대학교육기관으로 출범하였다. 1957년 9월에는 학교 건물을 지금의 이문동에 새로 지어 옮겨 왔으며, 다음 해부터 첫 졸업생들을 사회에 내 보냈다. 이로써 이문 캠퍼스 시대의 막이 오르고, 외대 동문들의 사회 진출이 시작되면서 30여 년의 연륜을 쌓고 있다.

1961년에는 대학원 신설 인가를 받아 개설하여, 본격적인 학문 연구의 활동을 펴 나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다음 해에는 시청각 교육원을 설치, 우리나라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어학 실습 실마를 갖추는 등 대학 발전의 기반을 견고하게 다져 나갔다.

특히 '6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개발계획의 착수와 함께 국내 산업이 진흥됨에 따라, 외국어 전공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본 대학교도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또한 학문 연구도 세계 무대로 눈을 돌려 질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1963년 4월 일본 天理大學과 교육교류협정을 맺게 된 것을 시작으로, 스페인 마드리드대학교, 사우디 아라비아 알-리야드대학교, 태국의 쥘라로콩국립대학교, 프랑스 제3파리대학교 미국의 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교, 영국의 워릭대학교, 서독의 뒤르즈브르크대학교 등 세계 각지의 명문 24개 대학교와 협정을 맺었다.

1966년에는 대학원의 확대 개편 및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본 대학이 계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경제·경영연구소, 언어연구소, 중국문제연구소, 동구권 등을 포함한 각 지역문제연구소 등 15개 연구소가 설치되었고, 무역대학원, 통역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정보대학원 등 4개 특수대학원을 설립, 석사과정과 연구과정을 개설함으로써 대학의 연구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1977년에 개원한 외국어연수원 생활관은 해외에 파견되는 공무원 및 무역상사 직원들의 외국어 단기연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 대학교는 질적 또는 양적으로 이와 같이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면서, 1979년에는 또 야

간강좌와 용인 캠퍼스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80년 10월 2일 본 대학교가 문교부로부터 종합대학교의 승격 인가를 받음으로써, '한국의국어대학교의 시대'를 열었다.

1954년 5개 어학과로 출발한 본 대학교는 1985년 3월 현재 모두 9개 대학(야간강좌 포함) 63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캠퍼스에는 서양어대학·동양어대학·법정대학·상경대학·사범대학 등 5개 단과대학에 29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용인 캠퍼스에는 문리과대학·어문대학·사회과학대학 등 3개 단과대학에 23개 학과가 있다. 그리고 야간강좌는 11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대학원(특수대학원 제외)은 碩士課程 32개 학과와 博士課程 15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기관으로는 서울 캠퍼스에 중앙도서관·시청각교육원·출판부·신문사(영자신문 디아거스와 외대학보)·세계민속자료실·전자계산실 등이 있고, 용인 캠퍼스에도 도서관·시청각실·전자계산실이 설치되어 있다.

본 대학교는 이처럼 외국어 전문교육기관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綜合大學校로서의 면모와 기능을 갖추고, 학문적 탐구와 사회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 II. 教育理念

한국의국어대학교의 교육 이념은 자유와 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학생 각 개인의 개성 장

달과 지도적인 인격을 도야하여 장차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이 이념을 구현하고자 인문, 사회 및 자연과학 등 광범위한 교양을 함양시키는 동시에, 본 대학교의 특수성인 외국어교육을 바탕으로 각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교수함으로써, 학문연구의 심도를 깊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대상을 국제화시키는 독특한 교육기관으로서 위치를 굳혀 가고 있다.

## III. 韓國外國語大學校의 特性

### 1. 2천년대를 향한 종합 캠퍼스 건설

용인의 대규모 종합캠퍼스는 국제 교류의 다변화에 따른 고급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 '한국의국어대학교 장기 발전계획'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

이미 확보된 80만평의 교지에 연건평 15만평의 시설이 건설되고 있으며, 장차 10개 단과대학에 30,000명의 학생과 6개 대학원에 6,000명의 학생을 수용하게 된다. 도서관·외국어학당·학생회관·교수회관·박물관·시청각교육원 등 부속 건물만도 20여 개 동 이상이 들어서서 연구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는 문리과대학·어문대학·사회과학대학에서 3,200명의 재학생들이 마음껏 심신을 단련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준공되어, 새학기부터 학생들이 입사하게 된다.

2,000년대에 있어서 용인 종합캠퍼스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국제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배움의 터전이 될 것이며, 또한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다.

### 2. 외국 대학들과의 폭 넓은 교육교류

본 대학교는 미국 버클리대학교를 비롯해, 일본 上智대학, 콜롬비아 아메리카대학교, 코스타리카대학교, 엘살바도르대학교, 과테말라 산 카를로스대학교, 스페인 마드리드대학교, 사우디아라비아 알-리아드대학교, 자유중국 보인대학



교, 태국 쾰라롱대학교,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이집트 카이로국립대학교, 프랑스 제3파리대학교, 동양어대학,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교, 요르단대학교, 미국 몬테리 국제대학, 멕시코 과달라하라 아우도노마대학교, 호주 남오스트레일리아 플린더스대학교, 일본 天理대학, 포루투갈 리스보아대학교, 영국 워링대학교, 서독 뷔르츠부르크대학교, 칠레 국립칠레대학교, 쿠웨이트대학교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공·사립대학교와 교육교류협정을 맺고 있다. 이 같은 외국 대학과의 교육교류협정은 국제적인 교육 및 문화교류를 통해 국가간의 상호이해를 고양시키고 폭 넓은 안목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교는 계속 교육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24개 외국 대학교와는 학생들이 보다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상호 협정이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외국에 나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들 대학과 정기적인 교환교수제 실시는 물론, 교육자료와 정보의 제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이 국제적인 학문 경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 3. 국내외의 저명한 교수 확보

다변화해 가는 사회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문적 탐구를 질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뛰어난 교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 대학교에서는 매년 연구 경력이 풍부하고 명망 있는 碩學들을 계속적으로 公探하고 있으며, 현재는 267명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다. 본 대학교 專任教員 가운데는 115명이 博士學位를 갖고 있고, 이 외에도 거의가 학위를 준비중에 있거나 받게 되어 있어, 2~3년내에는 대부분 博士學位를 소지한 교수들로 교수단이 구성되게 된다.

또한 본 대학교에는 語·文學분야는 물론 사회과학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능력 있는 외국인 교수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모두 49명의 외국인 교수들이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 전문 학자들을 초빙할 계획으로 있다.

### 4. 활발한 研究活動

본 대학교는 교수 및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소들을 갖고 있다. 현재 본 대학교에는 경제·경영연구소·언어연구소·중국문제연구소·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중남미문제연구소·중동문제연구소·아프리카문제연구소·한국지역문제연구소·외국어교육연구소·학생생활연구소·인문과학연구소·사학연구소·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통역대학원·통역, 번역센터·경영정보(M.I.S)연구소(예정) 등 모두 15개의 연구소가 있다.

이들 연구소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의 제반 문제들에 대해 학문적으로 밀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물론, 사회와 교육 현장, 이론과 실제의 사이에서 가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의 문제들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정세의 흐름과 변동을 학문적 차원에서 포착하고, 이를 학술적 이론으로 다듬고, 나아가서는 미래의 추이를 가늠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본교에 가장 먼저 설립된 경영정보연구소는 앞으로 각종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하고 종합하여 응용토록 하는 첨단학문의 연구를 펴 나가게 되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5. 시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오늘의 사회는 급변하는 사회이다.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회에 수용·통합되어 기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가르치고 다듬는 일은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큰 책무 중의 하나이다.

본 대학교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교육에 힘쓰고 있다.

#### 1) 외국어 교육의 철저

외국어의 활용능력은 학문 연구는 물론, 국제화시대를 맞이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 된다. 특히 국제 무대에서 정치적인 문제와 자주 부딪치게 되고, 경제력을 대외적으로 신장시켜 나가야 할 입장에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외국어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대학교는 어느 전공분야이거나간에 학생들이 재학하는 동안 가능한 한 2개 이상의 외국어 활용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 외국인 교수들의 직접적인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청각교육원에 언어실습실·동시 동역 훈련실·영사실·사운드 라이브러리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외국어 실습에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전공분야의 확대

폭 넓은 지식을 지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공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본 대학교는 그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부전공제도와 복수전공제도를 부여하고 있다.

부전공제도는 학생들이 전공하는 분야 이외에 다른 1개 분야를 더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곧 학생들이 자기 전공 이외에 다른 영역의 학문을 하나 더 공부함으로써 지식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복수전공제도는 학생들이 입학 당시의 전공 이외에 자기가 선택하는 부전공을 연장하여 다른 하나의 제 2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제 1전공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한 후 제 2전공을 1년 내지 2년 동안 연장 수업하여 제 2전공학과의 전공학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학위를 받게 되는 제도이다.

## 3) 컴퓨터교육의 강화

科學과 産業 등 각 분야에서 急進的인 발전과 확산을 보이고 있는 電算化에 대비, 서울과 용인 캠퍼스에 각각 전산실을 설치해 학생들의 컴퓨터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컴퓨터교육은 자연과학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분야의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그 이용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현재 컴퓨터 시설로는 서울 캠퍼스에 VAX-11/750을 보유하고 있고, 용인 캠퍼스에 VAX-11/780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컴퓨터는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의 전산 실습과 연구에 사용되며, 입서관리·성적관리·학적관리 등 교내

학사업무 등에도 이용되고 있다. 우리 대학교만의 특수학문인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대학원은 바로 이러한 전산교육과 경영학을 통합하여 활용하는 좋은 예이다.

## IV. 종합적인 發展計劃

### 1. 용인 캠퍼스의 施設 확충

용인 캠퍼스는 장차 서울 캠퍼스를 이전하여 세계 속의 명문 사립대학교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건설되고 있는 만큼, 이미 확보된 기본 시설 이외에도 가능한 한 캠퍼스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기숙사 시설도 더욱 확충하여 많은 학생들이 불편 없이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수 연구실을 비롯한 각종 연구시설들을 세워 나갈 계획이다.

한편 캠퍼스내 조경과 편의시설 및 후생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교내 환경도 점차 그 면모를 달리하도록 해 나갈 것이다.

### 2. 敎育課程의 점진적 改編

學問 및 科學技術의 급격한 발달로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부단한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앞으로의 대학교육에서는 학생들이 복합 사회적 환경에 뛰어들어 기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소양과 전문지식분야를 연구·소화할 수 있는 바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일부분에만 편벽된 지식의 전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대학교는 敎養敎育에 역점을 두어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실제와 이론을 조화 있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서이다.

그리고 敎授方法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體驗과 실험실습을 통해 創造的인 능력을 기르고, 思考力과 책임성을 심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교과과목이나 과정은 매년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판타하며 신규채용 교수는 새로운 학문경향의 연구실적을 가진 사람으로 우선 공채함으로써 캠퍼스의 硬直防止를 도모하고 있다.

### 3. 대학원 교육의 강화

대학원은 학문의 深奥한 연구와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專門인 교육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추세이다. 또한 자 대학의 교육이 대학원 중심으로 옮겨 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대학교는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문 탐구에 전심할 수 있도록 장학금의 확충, 참고 도서의 구비, 연구실 마련 등 기본 여건을 배가시켜 가고 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은 큰 부담 없이 외국 대학에 나가서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교육교류협정과 자매결연 사업을 보강·확충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무역대학원·통역대학원·교육대학원·경영정보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을 더욱 활성화시켜, 사회와 대학이 보다 긴밀한 산학협동 관계를 갖도록 운영의 합리화물 시도하고 있다.

### 4. 세계의 지역문제 연구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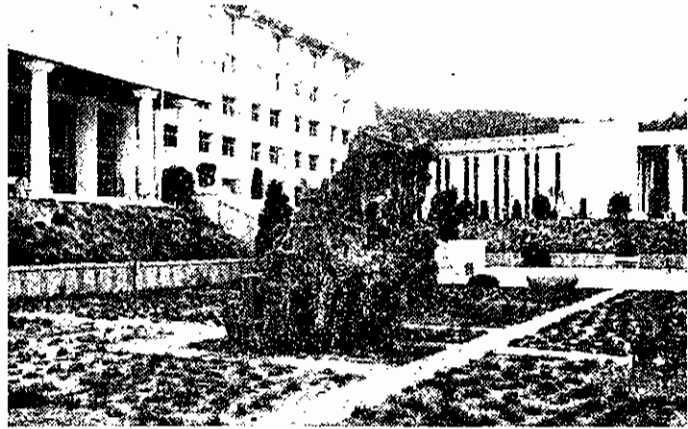
국제 무대에서 낙오되지 않고 경쟁 대열에서 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크게 요구된다. 한 나라의 사회적 전통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형식의 교류도 진정한 교류가 될 수 없다.

본 대학교는 앞으로 국제적인 이해 증진과,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바로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 등에 대한 연구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여러 차원에서 한국과 교류가 예상되고 있는 동구 공산권에 대한 문제들도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 5. 민주적인 大學行政體系 확립

대학은 모름지기 知性的 사회이다. 대학은 일반 사회조직과는 그 차원이 다르며, 따라서 모든 행정은 연구·교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모아져야 한다.

교수·학생·교직원은 누구나 대학행정에 대한 바람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안 모색에 진



력해야 한다. 서로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대학행정의 모습이다. 모두가 平等한 관계 속에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이루어진 자율적 합의에 의한 운영이 곧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대학행정인 것이다.

본 대학교는 이와 같은 행정체계 정립 위에 학사행정과 경영관리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학교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본 대학교는 개교 이래 지난 30여 년 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로 뻗어 나가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할 인재 양성에 전력하고 있다. 초창기부터 어학교육에 충실을 기하여 외국어 학습과 실용화에 많은 공헌을 해 왔고, 제반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 왔다.

이제 한국의국어대학교는 지난 1980년 종합대학교로 승격되면서, 경기도 용인에 대지 80만평, 건평 15만평의 메머드종합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同門·학부도·財團의 헌신적 支援 아래, 명실공히 한국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한편 본교에서는 지금까지 학사 1만 5천여 명과 석사 1,320명, 박사 35명(1984 현재)이 배출되어 교육 현장과 연구기관은 물론, 정치·외교·언론·기업 등 각계 각층에서 일하고 있다. \*